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5차 회의

1. 일 자 2010년 7월 29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강 명 현 위 원 (의장직무대행)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8호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현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0.7.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현재 통안증권 대상기관중 일부 은행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본 요건인 최소인수비율 2%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이익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중앙은행과의 거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평판을 높여 영업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상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공정성이 제고되는 측면은 있겠으나 당행의 리스크 부담이 늘어나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대상기관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콜시장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일부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년중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동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불임과 같이 선정한다.

〈불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8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참조)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의장직무대행은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7월부터 정부 각부처가 서민 체감경기 파악을 위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과 검토중에 있는 물가 및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음